

## 문제1.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새로움에 대한 다수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하지만, 그 새로움을 수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제시문(가)와 제시문(나),(다)는 서로 구별된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바람직한 다수는 새로움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시키지 않는다. 제시문(가)에서 종교창시자의 능력을 가진 피타고라스, 플라톤이 수준높은 그리스에서 종교창시에 실패한 점과 루터가 남유럽에 비해 뒤쳐진 북유럽에서 성공한 종교개혁을 보아, 다수가 새로움 반대한다는 것은 반대파의 요구들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하고, 다수가 새로움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이 새로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나)와 (다)는 공통적으로 다수의 새로움에 대한 수용이 진보와 발전을 이룬다는 점에서 새로움에 대한 수용을 긍정한다. 하지만 제시문(나)와 (다) 역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주체와 새로움을 전승하는 수단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나)에서 새로움으로 치환될 수 있는 걸작은 독립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여 혼자서 완결되는 자기완결성을 띤다. 그리고 걸작은 그 걸작을 모독하는 아류를 통해 전승된다는 역설을 가진다. 걸작을 모방하고 모독하는 아류를 다수가 비판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걸작에 대한 존경심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시문(다)에서 혁신(새로움)은 무수한 창조집단의 집단적인 성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혁신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두 잊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기반으로 다시 축적을 해 나간다. 이러한 대체와 축적의 과정을 통해 새로움은 발전하고 계승되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진보를 가져온다.

## 문제2.

제시문 (라)에서 개별형 사이트의 참여자가 다운로드한 횟수를 보면 미공개 신곡들의 질을 알 수 있으므로, 곡10이 가장 좋은 곡이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곡의 질이 떨어지며, 곡1은 가장 좋지 않은 곡이다. 집단형 사이트에서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들의 평과 다운로드 횟수를 알 수 있으므로 여기서 나타난 다운로드 수는 집단의 의견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집단형 사이트와 개별형 사이트의 다운로드 순위를 나타낸 <그림2>를 보면 개별형 사이트와 집단형 사이트의 신곡 다운로드 순위는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1>을 보면 집단별로 개인들이 원하는 선호도에 따라 곡별 다운로드 수가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곡의 질이 높은 좋은 음악일수록 이러한 편차가 크다.

제시문 (라)의 이러한 결과는 제시문(가)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제시문 (가)의 논지에 따라 <그림2>의 다운로드 순위를 보면 새로운 신곡을 절대적 기준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다수가 따라간다는 점에서 실험 참여자들을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고 비판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1>의 집단형 1,2,3,4,5중 어떤 집단도 다운로드 횟수가 개별형 다운로드 횟수와 완전히 비례하지 않는다. 집단형 사이트의 특성상 다른 참여자들의 평을 읽고, 다운로드 횟수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을 보면, 이 집단1,2,3,4,5는 새로움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 않으며, 제시문(가)의 입장에서 다시 이 집단을 다원적이고 수준 높다고 판단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 따라서 제시문(가)의 논지는 (라)의 결과에 의해 비판받을 수 있다.